

# 《尚書·多士》편 經文과 주석서 언어 비교 연구

曹銀晶\*

---

##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주석서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학적 차이
  - III. 주석서의 시대적 관점으로 誤讀한 경문
  - IV. 나오며
- 

## I. 들어가며

중국어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크게 상고중국어, 중고중국어, 근대중국어, 현대중국어 등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두 계통으로 나누면 ‘상고+중고’와 ‘근대+현대’로 구분 가능하다. 상고중국어 시기에서 중고중국어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국어는 한차례 큰 변화를 겪는데 백은희(2001)와 魏培泉(2003) 등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어순, 어법, 어휘 등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한 바 있다. 필자가 박사논문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語氣詞 계통 역시 상고중국어에서 중고중국어 시기로 넘어가면서 기능이 통합되거나 단순화되고 있었다.<sup>1)</sup> 이러한 언어학적인 변화 현상은 語氣詞 외의 품사로까지 확장해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sup>2)</sup>

이에 본고에서는 상고중국어 초기의 문헌인 《尚書》와 상고중국어 후기 및 중고

---

\* 인하대 중국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성균관대 중문과 강사. 본고는 필자가 2011년 봄 학기에 臺灣大學 중문과에서 梅廣 선생님의 《上古漢語句法專題研究》 수업을 청강할 당시 《尚書·多士》新譯이라는 주제로 제출되어 구두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보충·심화·번역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 1) 가령 春秋戰國 시기에 종종 출현하던 語氣詞 ‘也者’와 ‘已’는 西漢 시기에 용법이 쇠락하게 되고 東漢 이후에는 소멸되며 ‘已’의 일부 기능은 ‘矣’가 대체하게 된다.
- 2) 필자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중국어 초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孔安國의 주석서 언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언어학적 차이 및 주석서의 誤讀 현상 등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다. 또한 《尚書》 중 상고중국어 초기 문헌에 속하여 시기적 논란이 적은 〈多士〉편으로 제한하여 논의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한편 본고에서 활용하는 연구방법은 ‘경문/주석서 비교법’으로 이는 백은희(1999), 王洪君(1987) 등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이기도 하다. 중국어사적인 각도로 통시적인 기능 변천 및 통합 등을 연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1) 특정 문헌의 여러 출토문헌 및 전래문헌을 비교하는 방법인 ‘판본비교법’ (2) 특정 문헌의 경문 및 주석서를 비교하는 방법인 ‘경문/주석서 비교법’ 등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활용하여 상고중국어 시기 내부의 언어학적 차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고찰할 예정이다.<sup>3)</sup>

## II. 주석서에 반영되어 있는 언어학적 차이

孔安國의 《尚書》주석서인 《尚書孔傳》의 저자와 成書 문제는 줄곧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尚書孔傳》이 비록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나 西漢 시기 孔安國에 의해 주석된 후 그 후에 공씨 집안사람들에 의해 보충 수정되어 成書되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다고 판단한다.<sup>4)</sup> 아래에서는 《尚書》經文과 孔安國

3) ‘판본비교법’과 ‘경문/주석서 비교법’은 기존에 일부 학자들에 의해 활용되어 온 연구방법이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본 연구방법에 대해 정식으로 개념화하여 용어를 정의한 연구자는 없었다. 필자는 연구의 편의나 연구방법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판단한다. 이에 위와 같이 용어를 정의하였다.

4) 李學勤(2002)은 皇甫謐의 《帝王世紀》에서 《尚書孔傳》을 인용하고 있고 皇甫謐은 AD 215년 이후에 생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魏晉 간에 《尚書孔傳》이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또한 현존하는 古文《尚書》는 孔安國, 孔僖, 孔季彥, 孔猛 등 孔氏 학자에 의해 편찬되고 수정 보완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陳以鳳(2010)은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尚書孔傳》과 《小爾雅》에 수록된 주석 언어를 단순 비교하여 西漢 孔安國의 후예인 孔驩과 孔子立 부자가 편찬했다는 《小爾雅》에 《尚書孔傳》의 주석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는 점을 근거로 《尚書孔傳》이 西漢 이후 공씨 가문에 의해 점진적으로 成書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 註解(이하 각각 ‘經文’과 ‘孔傳’이라 약칭)가 언어학적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여러 각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한 예문을 중복 사용해야 할 경우 ‘a’, ‘b’, ‘c’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 해당 예문이 중복 출현하고 있으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토록 하겠다. 가령 (6a)와 (6b)가 출현할 경우 용례는 같으나 전자는 代詞에 강조를 두고 후자는 목적어 전치에 강조를 두는 예문일 수 있다는 뜻이 되겠다.

## 1. 품사적 차이

### 1) 代詞의 통합 및 대체

《尚書·多士》편 經文에는 인칭대사 ‘我·予·朕·爾·乃’와 지시대사 ‘茲·時·厥’가 쓰이고 있는데 이는 孔傳에서 ‘我·汝’와 ‘此·是·其’로 대체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人稱代詞의 통합

經文에는 1인칭대사로는 ‘我·予·朕’이, 2인칭대사로는 ‘爾·乃’가 출현하는데 孔傳에서 전자는 모두 ‘我’로, 후자는 모두 ‘汝’로 대체되었다.

#### 가) 1인칭대사

蒲立本(2006:85)은 “甲骨文에서의 代詞 사용 현황으로 살펴볼 때 ‘余’와 ‘朕’은 거의 대부분 商王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으며 ‘我’는 商나라 사람 전체를 가리키고 있었다. …… 周代에 들어서면 초기 金文에서 이러한 규칙은 파괴되고 ‘我’가 1인칭 단수로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예전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 ‘余’와 ‘予’는 점차 소멸되게 되고 卍-계 代詞는 당시의 습관에 따라 단수와 복수 모두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余’와 ‘予’ 모두 제한적으로 단수에만 쓰이기도 한다.”라 언급한 바 있다.<sup>5)</sup>

5) “從代詞在甲骨文中的使用情況來看, ‘余’、‘朕’幾乎毫無例外地用以指稱商王自己, 而‘我’則指作為整體的商朝人。……到了周朝早期的金文當中, 上述區分被打破了, ‘我’用作單數第一人稱變成了可能。但是, 舊有形式仍有保留。……‘余’和‘予’趨於消亡, 卍-系代

經文의 1인칭대사로는 ‘我·予·朕’이 쓰이고 있는데 ‘我’는 총 15차례, ‘予’는 13차례, ‘朕’은 3차례 쓰이는 등 1인칭대사는 총 31차례 출현하고 있다. ‘我’는 主格·賓格·領格·同位格으로 두루 쓰이고 있었고 ‘予’는 主格·領格·同位格으로만, ‘朕’은 主格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1) 肆爾多士，非我小國敢弑殷命；惟天不畀，允罔固亂，弼我；我其敢求位？  
(너희 여러 관리들이여! 우리 작은 나라가 은나라의 명을 감히 취한 것이 아니다. 하늘이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음은 진실로 짐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로 우리를 도운 것이다. 우리가 감히 그 자리를 구하였겠는가?) [孔傳] 非我敢取殷王命，乃天命。惟天不與信無堅固治者，故輔佑我，我其敢求天位乎。

(2) 非我一人奉德不康寧，時惟天命。(나 한사람이 덕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 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는 하늘의 명이다.) [孔傳] 我徙汝，非我天子奉德，不能使民安之，是惟天命宜然。

(3) 予一人惟聽用德，肆予敢求爾于天邑商。予惟率肆矜爾；非予罪，時惟天命。(나 한사람은 덕 있는 자를 쓰려 하니, 나는 하늘의 도읍인 상에서 당신들 중에서 인재를 구하려 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을 가여워하기 때문이며 이는 내 죄가 아니라 하늘의 명이다.) [孔傳] 言我周亦法殷家，惟聽用有德，故我敢求汝於天邑商，將任用之。惟我循殷故事，憐愍汝，故徙教汝，非我罪咎，是惟天命。

(4) 今朕作大邑于茲洛。(지금 나는 이 洛 지역에 큰 도읍을 만든다.) [孔傳] 今我作此洛邑。

예(1)에서 ‘我’는 총 3차례 출현하는데 순서대로 각각 領格, 賓格, 主格으로 쓰이고 있으며 예(2)의 ‘我一人’은 同位格으로 사용된 예이다. 經文에서의 ‘我’는 단수와 복수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었으며 領格으로 6차례, 賓格으로 3차례, 主格으로 5차례, 同位格으로 1차례 쓰이고 있었다. 예(3)의 ‘予’는 각각 同位格, 主格, 主格, 領格으로 쓰이고 있다. 經文에서의 ‘予’는 보통 단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主格 11차례, 同位格 1차례, 領格 1차례로 쓰이는 등 거의 대부분이 主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4)의 ‘朕’은 主格으로 사용되었는데 〈多士〉편에 나오는 ‘朕’은 총 3차례로 전부 主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詞按當時的常例是既可以表示單數又可以表示複數的。‘余’、‘予’亦有用例，當它們仍被限制在單數上面。”

孔傳에는 상기 1인칭대사가 전부 ‘我’로 대체되어 있었다. 〈多士〉편 孔傳에는 총 31차례의 ‘我’가 쓰이고 있었는데 主格·賓格·領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나) 2인칭대사

〈多士〉經文의 2인칭대사로는 ‘爾’과 ‘乃’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爾’은 총 34차례, ‘乃’는 1차례 쓰이고 있는 등 ‘爾’의 사용빈도가 월등히 높았다. ‘爾’과 ‘乃’ 모두 복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爾’은 主格·賓格·領格·同位格을 두루 나타내고 있었지만 ‘乃’는 領格으로만 쓰이고 있었다.

(5) 亦惟爾多士攸服。(당신들 여러 관리들은 복종한다.) [孔傳] 亦惟汝衆士, 所當服行。

(6a) 惟爾洪無度; 我不爾動, 自乃邑。(당신들은 법도가 상당히 없었다. 우리가 당신들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당신들 도움에서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孔傳] 惟汝大無法度, 謂紂無道。我不先動誅汝, 亂從汝邑起。

예(5)와 (6a)의 ‘爾’는 각각 同位格, 主格, 賓格으로 쓰이고 있다. 예(6a)의 ‘乃’는 領格으로 쓰이고 있다. ‘爾’는 〈多士〉편에서 主格으로 11차례, 賓格으로 7차례, 同位格으로 10차례 쓰이고 있었는데 이 밖에도 ‘爾土(당신들 땅)’, ‘爾躬(당신들 자신)’, ‘爾邑(당신들 도움)’ 등의 領格으로도 6차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乃’는 領格으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며 그것도 1차례만 쓰이고 있었다.

經文에서의 2인칭대사는 孔傳에서 모두 ‘汝’로 대체되어 있었다. 〈多士〉편 孔傳에는 총 37차례의 ‘汝’가 쓰이고 있었는데 主格·賓格·領格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 ② 指示代詞의 대체

〈多士〉편 經文에는 지시대사로 ‘茲·時·厥’가 쓰이고 있다.<sup>6)</sup> 그 중 ‘茲’는 3차례, ‘時’는 9차례, ‘厥’은 3차례가 지시대사로 사용되고 있었으며<sup>7)</sup> ‘茲’와 ‘時’는 近

6) 〈多士〉편 經文에는 총 5차례의 ‘其’가 쓰이고 있으나, 모두 지시대사가 아닌 부사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7) ‘厥’이 부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1차례 있었는데 예문은 다음과 같다. “今爾惟時宅爾邑, 繼爾居, 爾厥有幹有年于茲洛。”(이제 당신들은 이에 당신들의 도움에 거주하며 당신들

指를, ‘厥’는 遠指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孔傳에서 전자는 각각 ‘此’와 ‘是’로, 후자는 ‘其’로 대체되어 있었다.

(7a) 惟時上帝不保, 降若茲大喪。(이에 上帝는 그를 보호하지 않고 이러한 큰 멸망이라는 저주를 내렸다.) [孔傳] 惟是紂惡, 天不安之, 故下若此大喪亡之誅。

(8) 惟時天罔念聞, 厥惟廢元命, 降致罰。(이에 하늘은 들어 이는 바가 없었고 그는 큰 명을 버리게 되었기에 하늘은 벌을 내렸다.) [孔傳] 惟是桀惡有辭, 故天無所念聞, 言不佑其惟廢其天命, 下致天罰。

‘茲’는 예(7a)의 용례 외에도 ‘茲洛(이 洛邑)’이라는 구문으로 2차례 더 쓰여 뒤에 나오는 NP를 수식해주고 있었다. ‘時’는 예(7)에서처럼 ‘惟時’로 쓰여 ‘時’의 近指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가 5차례, 판단문에서 ‘時惟’ 구조로 쓰인 경우가 2차례 있었다. 이밖에 예(8)의 ‘厥’은 하나라 임금이었던 桀을 가리키는 지시대사로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厥洸(그의 과실)’과 ‘厥德(그의 덕)’ 모두 遠指를 나타내는 지시대사로 사용되었다.

孔傳에서는 ‘茲’가 ‘此’로, ‘時’가 ‘是’로, ‘厥’가 ‘其’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 2) 否定詞의 통합

經文에 출현하는 부정사는 ‘不·弗·非·無·罔’이 있었는데 이는 孔傳에서 ‘不·非·無’로 통합되어 있었다. 다음을 보자.

### ① 일반부정의 통합

經文에서 부정사 ‘不’은 총 15회 사용되고 있었으며 모두 일반부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孔傳에서 역시 모두 ‘不’로 쓰이고 있었다. 그러나 ‘弗’은 2차례 사용되었는데 이는 孔傳에서 모두 ‘不’로 대체되어 풀이되고 있었다.

(9) 弗弔, 旻天大降喪于殷。(불행하게도 하늘은 은나라에 큰 멸망을 내렸다.)

의 거주지를 이어갈 것이다. 당신들은 장차 이 洛邑에서 풍요롭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孔傳〕殷道不至，故旻天下喪亡於殷。

(10) 弗克庸帝，大淫泆，有辭。(帝의 경계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심하게 즐겨 나쁜 평판이 생겼다.)〔孔傳〕桀不能用天戒，大爲過逸之行，有惡辭聞於世。

## ② 존재부정의 통합

經文에는 ‘無’가 3차례, ‘罔’이 9차례 쓰이고 있는데 ‘罔’은 모두 존재부정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無’는 1차례는 존재부정을, 2차례는 명령문에 쓰여 금지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존재부정을 나타내는 용례는 예문(6)에 쓰이고 있다. 아래 예문은 ‘罔’이 존재부정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1) 自成湯至于帝乙，罔不明德恤祀。(탕왕부터 帝乙에 이르기까지 덕을 밝히고 제사를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孔傳〕自帝乙以上，無不顯用有德，憂念齊敬，奉其祭祀。

孔傳에서 존재부정을 나타내는 ‘罔’은 모두 ‘無’로 통합되었다. 이 밖에도 ‘非’는 經文과 孔傳 모두에서 ‘非’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명령문에 쓰여 금지를 나타내는 ‘無’의 경우에도 孔傳에서 그대로 ‘無’로 쓰이고 있었다. 아래 예(12a)는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예문이다.

(12a) 無違！朕不敢有後，無我怨！(어기지 마라! 나는 감히 뒤로 미루지 못하겠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孔傳〕汝無違命！我亦不敢有後誅，汝無怨我！

## 3) 소결

상술한 품사의 통합 및 대체 사용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多士〉편 經文과 孔傳에서의 품사 사용 변화

구분		經文	孔傳
代詞	인칭대사	1인칭	我, 予, 朕
		2인칭	爾, 乃
	지시대사	近指	茲
		時	是
遠指	厥	其	
否定詞	일반부정	不, 弗	不
	존재부정	無, 罔	無

품사의 통합과 대체라는 이러한 언어학적 차이는 백은희(2001)에서의 연구처럼 先秦 시기와 兩漢 시기의 언어 변이 현상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2. 통사적 차이

### 1) 목적어 전치 구조의 차이

#### ① 부정문에서의 목적어 위치 변화

〈多士〉편 經文에는 부정문에서의 목적어 전치 구문이 총 3차례 출현하는데 사용된 목적어는 모두 代詞였다.

(6b) 惟爾洪無度；我不爾動，自乃邑。(당신들은 법도가 상당히 없었다. 우리가 당신들을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당신들 도읍에서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다.) [孔傳] 惟汝大無法度，謂紂無道。我不先動誅汝，亂從汝邑起。

(12b) 無違！朕不敢有後，無我怨！(어기지 마라! 나는 감히 뒤로 미루지 못하겠으니 나를 원망하지 마라!) [孔傳] 汝無違命！我亦不敢有後誅，汝無怨我！

(13a) 今予惟不爾殺，予惟時命有申。(지금 나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명을 거둬 삼갈 것이다.) [孔傳] 是我不欲殺汝，故惟是教命申戒之。

예(6b)와 (13a)의 경우 진술문에 쓰여 일반부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12b)는 명령문에 쓰여 금지를 나타내고 있는 등<sup>8)</sup> 모두 '부정사+인칭대사+V' 구문으로 사용

8) 유선영(2009)에서는 예(12b)에 대해 명령문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였으면 서도 진술문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유선영(2009)의 연구가 《尚書》의



되고 있다. 상기 목적어 전치 구문은 孔傳에서는 모두 후치 구문으로 적혀 있는데 (6a)는 ‘我不先動誅汝’로, (12b)는 ‘汝無怨我’로, (13a)는 ‘我不欲殺汝’로 모두 ‘부정사+V+인칭대사’ 형식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 ② 긍정문에서의 목적어 전치 구조 변화

《多士》편 經文의 경우 긍정문에서 목적어가 전치되는 구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명사목적어 전치와 代詞목적어 전치가 있었다.

(14) 惟我事不貳適，惟爾王家我適。(우리는 맡은 일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으니 당신들 나라는 우리를 따를 지어다.) [孔傳] 言天下事已之我周矣，不貳之佗，惟汝殷王家已之我，不復有變。

(13b) 今予惟不爾殺，予惟時命有申。(지금 나는 당신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며 나는 이 명을 거듭 삼갈 것이다.) [孔傳] 是我不欲殺汝，故惟是教命申戒之。

(14) ‘惟爾王家我適’의 ‘我’는 ‘適’의 목적어로 전치되어 있다. (14)의 경우 孔傳에서 ‘惟汝殷王家已之我’로 쓰이는 등 대사목적어가 후치되어 있다. 유선영(2009)에 따르면 《尚書》중 긍정문에서의 목적어 전치 구조는 ‘목적어+동사술어’, ‘惟+명사목적어+동사술어’, ‘惟+목적어+是/之+동사술어’ 등 3문형이 있었는데 그 중 ‘목적어+동사술어’ 구문의 목적어는 ‘子’ 아니면 ‘是’라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상술한 예(14)의 ‘我’ 역시 목적어 전치 구조에 해당하였다. 무표지 목적어 전치 구조에 대해 유선영(2009)은 ‘惟’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14)에서 ‘我’가 전치된 이유는 운율 때문인 듯하다. 즉 앞 문장의 ‘不貳適’의 ‘適’과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판단된다.

예(13b) ‘予惟時命有申’의 ‘惟時命’은 ‘有申’의 목적어로 전치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孔傳에서는 ‘惟時命’이라는 목적어를 재지시(複指)하는 지시대사 ‘之’가 사용되어 ‘故惟是教命申戒之’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孔傳에서의 목적어의 재지시(複指) 용법은 다음 용례에서도 확인된다.

---

목적어 전치를 의문문과 진술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오류이다. 양태(modality)의 범주에서 보았을 때 명령문과 진술문은 각기 다른 범주에 속하는 영역이기에 예(12b)는 진술문이 아닌 명령문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7b) 惟時上帝不保，降若茲大喪。(上帝는 그를 보호하지 않고 이처럼 큰 멸망을 내렸다.) [孔傳] 惟是紂惡，天不安之，故下若此大喪亡之誅。

예(7b)의 '惟時上帝不保'는 孔傳에서 '惟是紂惡，天不安之'로 풀이되고 있다. 즉 孔傳에서는 經文에는 없는 '之'가 출현해 '惟是紂惡'을 재지시(複指)하고 있는 것이다.

### 2) 목적어의 유표화

〈多士〉經文과 孔傳의 또 다른 차이점은 孔傳에서 일부 목적어가 '者'를 추가해 유표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惟天不畀，允罔固亂。(하늘이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음은 진실로 집정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孔傳] 惟天不與信無堅固治者。

(16) 殷王亦罔敢失帝，罔不配天。(은나라 왕 또한 감히 帝를 잃는 자가 없었으며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孔傳] 殷家諸王皆能憂念祭祀，無敢失天道者。

(17) 惟天不畀不明厥德。(하늘은 그 덕을 밝히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孔傳] 惟天不與不明其德者。

예(15)의 '允罔固亂'은 孔傳에서 '信無堅固治者'로, 예(16)의 '失帝'은 '失天道者'로, 예(17)의 '不明厥德'은 '不明其德者'로 모두 목적어가 유표화되어 있었다.

### 3) 소결

상술한 통사적 차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多士〉편 經文과 孔傳에서의 통사적 변화

구분		經文	孔傳
목적어 전치구조	부정문	부정사+인칭대사+동사	부정사+동사+인칭대사
	긍정문	인칭대사+동사 惟+일반명사+동사	동사+인칭대사 惟+일반명사+동사+之
목적어 유표화		동사+VP	동사+VP+者

목적어 전치 구조가 후대에 후치 구조로 바뀌는 현상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多士〉편의 經文과 孔傳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다. 궁정문에서의 전치구조가 후대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유선영(2009)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며 본고에서는 ‘인칭대사’가 전치되었다가 후대에 후치된 구조로 바뀐 예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특징적인 점은 전치된 목적어 성분을 재지시(複指)하는 지시대사가 후대 문헌인 孔傳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재발견했다는 점이다. 또한 經文에서 VP 자체로 명사화된 의미를 나타내던 용법이 후대 문헌인 孔傳에서는 일부 용례에 한해 ‘者’를 붙여 유표화되고 있음 역시 알게 되었다.

### Ⅲ. 주석서의 시대적 관점으로 誤讀한 경문

#### 1. ‘于’자문

〈多士〉편은 (18)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는데 孔傳에서는 그 중 ‘于’를 (18-1)와 같이 介詞로 註解하고 있었으며 현대 학자들의 번역서에서도 (18)의 ‘于’는 대부분 介詞로 풀이되어 있었다.

(18) 惟三月，周公初于新邑洛，用告商王士。

(18-1) 周公致政明年三月，始於新邑洛，用王命告商王之衆士。(孔傳)

(18-2) (成王七年)三月，第一次在雒邑這新城裡，來告誡商王(所遺留)的官員們。(屈萬里(1969))

(18-3) 三月裏，周公第一次在新都洛邑裏召集了商王方面的貴族階級，說了一番話。(顧詒剛·劉起鈞(2005:1524))

(18-4) 3월달, 주공은 처음으로 새 도읍 낙에서 상나라 임금의 관리였던 사람들에게 고하였다. (김학주(2002))

(18-1)는 孔傳에서의 풀이로, ‘于’를 ‘始於新邑洛’라는 ‘V+PP’구조에 놓인 介詞로 풀이하고 있다. (18-2)와 (18-3)은 각각 중국 대륙과 대만에서의 번역본인데 모두 ‘在’라는 介詞로 풀이되어 있다. (18-4)는 김학주(2002)에서의 번역인데 필자

가 조사한 몇몇 한국 번역본에서는 거의 이와 비슷하게 번역되어 있었으며 ‘于’ 역시 모두 介詞로 풀이되어 있었다.

그러나 清代 학자인 皮錫瑞는 ‘初于新邑洛’를 ‘初往成周之邑’로 풀이하는 등 ‘于’를 동사 ‘往’으로 보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견으로 필자 역시 상기 용례의 ‘于’를 동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于’가 당시 동사로 쓰였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論題이므로 본고에서 ‘于’를 동사로 보는 이유를 아래에서 비교적 상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 1) 예(18)의 ‘于’가 介詞가 아닌 이유

〈多士〉편 經文의 ‘于’는 총 15차례 출현한다. 그 중 거의 대부분(14차례)의 ‘于’가 介詞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于+장소’ 형식으로 소재지를 나타내는 경우가 4회, ‘于+대상’ 형식으로 여격으로 쓰인 경우가 6회, ‘于+소절/VP/대상’ 형식으로 ‘~에 대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가 3회, ‘술어+于+주어’ 형식으로 쓰여 ‘주술’ 구문의 도치로 쓰인 경우가 2회 있었다. 예(18)의 ‘于’ 역시 ‘于+장소’로 쓰였으므로 수많은 譯書에서 해당 구문을 介詞로 풀이한 듯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상기 ‘于’는 介詞가 아니다. 첫째, 선진 시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介詞 ‘于’는 보통 VP 뒤에 쓰였는데 예(18) 앞에는 VP 구조가 오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蔣紹愚(1999)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어(특히 선진시기 중국어)는 形態 변화가 부족한 언어이지만 介詞 ‘于’는 상당히 명확한 표지이다. 선진시기 중국어에서 ‘V+(O)+于+L’의 구조에서 ‘于+L’은 모두 동사 뒤에 쓰이는데 이는 ‘于’라는 표지 때문이다.(역자 주: L은 처소를 나타낸다.)

〈多士〉편 經文에서도 ‘于+장소’가 소재지를 나타낼 경우 앞에 ‘求爾’, ‘作大邑’, ‘有年’ 등의 VP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예(18)은 그렇지 않았다.

둘째, VP 앞에 놓이는 介詞 ‘于’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구조상의 제약이 있었다. 張楨(2002:32)에 따르면 이 시기에 ‘于+장소’가 VP 앞에 놓이는 경우는 극소수였으며 보통 비교문에 쓰여 對比 작용을 하든지 아니면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였

다. 그러나 예(18)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셋째, 통시적인 각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介詞 전치는 후대에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필자의 고찰에 따르면 〈多士〉편 經文과 西周 初期 金文에서 ‘于+장소’ 구조가 동사 앞으로 전치되어 쓰인 예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예(18)의 ‘于’는 介詞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예(18)의 ‘于’가 動詞인 증거

그렇다면 ‘于’는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 필자는 예(18)의 ‘于’는 동사로 풀이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갑골문에서 ‘于’는 동사 용법을 지니고 있는데 ‘가다’라는 ‘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于’가 갑골문에서 介詞 용법으로 쓰이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動詞로 쓰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견이 분분하다. 胡小石과 于省吾는 갑골문에서의 ‘于’가 介詞로만 쓰이고 있다고 하였으며 陳夢家·楊樹達·饒宗頤·郭錫良 등은 갑골문에서의 ‘于’는 介詞와 동사 모두로 쓰인다고 하였다.<sup>9)</sup> 그 중 楊樹達와 饒宗頤는 ‘于’를 ‘往’으로, 郭錫良은 ‘去到’로 풀이하고 있다. 어법화 이론에 따르면 介詞는 보통 動詞에서 虛化된다. 梅祖麟(2004)은 ‘于’의 갑골문에서의 동사 용법이 존재하였음을 상당히 긍정하고 있으며 그 의미를 《毛傳》에서 언급한 ‘于, 往也’를 인용하여 ‘來往’의 ‘往’으로 보고 있다. 梅祖麟은 ‘于’가 이러한 동사 용법에서 동작이 발생한 장소나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는 介詞로 虛化되었다고 주장하였다. 蒲立本(2006:58)은 ‘于(yú; 초기 중고음wua)’의 어원을 살펴보면 ‘往’(去)의 의미; 초기 중고음wuag)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보면 갑골문에서의 ‘于’는 동사 용법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동사 용법이 西周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西周 초기 金文의 ‘于+장소’ 용례는 상술한 介詞의 여러 용법 외에도 현대중국어의 ‘向’의 의미 역시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 예

9) 이상 胡小石의 연구는 《胡小石論文集三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58쪽(郭錫良(1997)에서 재인용) 참조. 于省吾·陳夢家 견해는 于省吾主編 《甲骨文字詁林》第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6, 3437쪽 참조. 楊樹達·饒宗頤·郭錫良의 연구는 郭錫良(1997) 참조.

문을 보자.

- (19) 唯王來各(格)于成周年。(厚趯鼎) (왕이 成周로 온 그 해)  
 (20) 唯四月初吉丁亥, 王在周, 各(格)于大室。(敵簋) (4월 초길 정해일에 왕은 周에서 大室로 왔다.)  
 (21) 唯王初遷宅于成周。(何尊) (왕은 成周로 처음으로 천도했다.)

이러한 방향을 나타내는 ‘于’는 대부분 ‘格’, ‘遷’, 혹은 ‘至’ 등의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동사 ‘于’는 동사 ‘往’의 의미에서 虛化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의 갑골문 ‘于’ 용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 (22) 貞 : 卿事(士)于秦北宗, 不邁大雨? (《書契前編》卷四) (卿士가 가서 北宗에서 秦際를 지나려는데 큰 비를 만나지 않겠습니까?)  
 (23) 壬寅卜, 王于商? (《甲骨文合集》33124) (壬寅에 점친다. 왕이 商으로 들어갑니까?)  
 (24) 丁卯卜, 爭貞 : 王往, 于敦, 不左? (《合集》7945) (丁卯에 점쳐 爭이 묻습니다. 왕이 가는데 敦에 도착하면 지켜주지 않습니까?)  
 (25) 貞 : 王往, 出, 于敦? (《合集》7943) (묻는다. 왕이 가는데 나가서 敦에 도착합니까?)

예(22)와 (23)에서의 ‘于’는 구법 위치 상 동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예(24)와 (25)에서의 ‘往’과 ‘于’의 차이에 대해 郭錫良(1997)에서는 현대중국어의 ‘走’와 ‘去’의 차이라고 보았다. 즉 후자는 반드시 처소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인 것이다.<sup>10)</sup> 즉 갑골문에서의 ‘于’는 확실히 동사 용법을 지니고 있었는데 西周 金文에서의 ‘于’의 ‘向’이라는 의미는 동사 ‘往’ 의미에서 引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西周 초기 金文에서의 ‘于’를 동사로 볼 수밖에 없는 용례가 있다. 아래 예문을 보자.

10) 학자별로 예(24)와 (25)의 ‘于’를 介詞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예(22)와 (23)의 ‘于’는 介詞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갑골문 당시 ‘于’가 동사로도 쓰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26) 唯周公子征伐東夷。(周公東征鼎)(周公子 東夷를 정벌하러 갔다.)  
 (27) 唯王于伐楚伯。(作冊矢令簋)(왕이 초나라를 정벌하러 갔다.)  
 (28) 唯王伐東夷。(夔鼎)(왕이 東夷를 정벌했다.)

예(26)-(28)의 용례는 모두 ‘唯NP+VP+NP’의 구문에 쓰이고 있다. 그 중 VP는 ‘于征伐’, ‘于伐’, ‘伐’로 쓰이고 있으며 모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于’는 동사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 3) 소결

이를 통해 우리는 西周 시기의 ‘于’가 극소수이기는 하나 동사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多士>편의 예(18) ‘惟三月，周公初于新邑洛，用告商王士.’의 ‘于’ 역시 동사로 풀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西周 시기에 ‘于’는 동사로도 쓰이고 있었으며, 둘째 西周 시기에 ‘于’의 介詞 용법은 비교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VP구조 뒤에 놓였기 때문이다. 예(18)의 ‘于’를 介詞로 풀이한다면 주요 술어가 ‘告’가 되는데 西周 시기에 介詞가 주요 동사 앞으로 전치되는 경우는 對比를 나타내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상기 예문의 ‘于’를 동사로 풀이하는 것이다.

그러나 張楨(2002)에서도 고찰한 바와 같이 西漢 이전에 ‘于+장소’가 개사구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VP 뒤에 놓였지만 東漢 이후의 구어 문헌인 佛經에서는 상당수가 VP 앞에 놓여 쓰이고 있었다. 즉 孔傳 당시의 구어에서 ‘于’는 거의 대부분 介詞 용법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그 위치 또한 VP 구조 앞으로 전치되던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孔傳에서는 ‘于’를 介詞로 풀이하게 된 것이고 후대의 대부분의 번역서들 역시 이러한 해석을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후대의 언어적 시각으로 선진시기의 經文을 誤讀한 대표적인 통사적 사례로 볼 수 있다.

## 2. ‘帝’와 ‘天’

梅廣(2007:4-5)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帝’와 ‘天’을 구분한 바 있다.<sup>11)</sup>

11) “殷周都是神權政治，在殷人的宗教思想裏，至高無上的主宰就是帝，在周人的觀念中

은나라와 주나라 모두 신권정치를 행하였었다. 은나라 사람들의 종교사상 속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바로 帝였으며 주나라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는 天(하늘)이었다. 비록 주나라 사람들 역시 上帝라는 호칭을 쓰긴 했었지만 말이다. …… 주나라 사람들은 天으로 帝를 대신했는데 비록 이러한 종교관념의 人格神을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국 상고시기 종교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되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靈媒나 다른 방식으로 上帝와 소통해 왔지만 天帝가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려면 天人의 人格神적인 면모는 취소되어야 한다. 주나라 사람들의 天은 종교적 의미에서 도덕적인 의미로 과도기적인 변화를 거쳤지만 은나라 사람들의 帝는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

〈多士〉편의 ‘帝’와 ‘天’의 쓰임을 살펴보면 梅廣(2007)에서 언급한 이러한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즉 經文의 ‘天’은 주나라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帝’는 은나라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용례를 살펴보면 經文에서 ‘天’과 관련된 예문은 총 15차례 출현하고 있었으며 ‘帝’와 관련된 예문은 총 9차례 출현하고 있었는데 그 중 2차례는 ‘上帝’라 쓰이고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予惟率肆矜爾；非予罪，時惟天命。(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들 가 여위하기 때문이며 이는 내 죄가 아니라 天의 명이다.) [孔傳] 惟我循殷故事，憐愍汝，故徙教汝，非我罪咎，是惟天命。

(30) 我乃明致天罰，移爾遐逝。(나는 이에 天의 벌을 내리고 당신들을 먼 곳인 이곳으로 옮긴다.) [孔傳] 我下其命，乃所以明致天罰。今移徙汝於洛邑，使汝遠於惡俗。

(31) 爾克敬，天惟畀矜爾。(당신들이 공경할 수 있다면 天은 당신들을 긍휼히 여겨 줄 것이다.) [孔傳] 汝能敬行順事，則爲天所與，爲天所憐。

(32) 今惟我周王丕靈承帝事。(지금 우리 주나라 왕은 帝의 일을 공손히 받들고 있다.) [孔傳] 周王，文武也。大神奉天事，言明德恤祀。

(33) 有命曰：『割股！』告勅于帝。(“은나라를 정복하라!”라는 명이 있었으니 이는 帝로부터 전해진 명이다.) [孔傳] 天有命，命周割絕殷命，告正於天。

(7c) 惟時上帝不保，降若茲大喪。(이에 上帝는 그를 보호하지 않고 이러한

---

則是天，雖然周人也用上帝這個稱呼。……周人以天取代帝，雖然並沒有取消這個宗教觀念的人格神一面，當卻發展出這個可能性。這在我國上古宗教史上是個關鍵性的轉變。人可以通過靈媒或其他方式與上帝交通，但是只要有一個天帝高高在上，天人的人格神一面被徹底取消以後才有可能。周人的天可以從宗教意義過渡到道德意義，殷人的帝則無此可能。”



큰 멸망이라는 저주를 내렸다.) [孔傳] 惟是紂惡，天不安之，故下若此大喪亡之誅。

(34) 惟帝不畀，惟我下民秉爲，惟天明畏。(帝는 紂와 함께 하지 않았고 우리 주나라 백성들은 행하게 되었으며 天은 두려움을 밝혔다.) [孔傳] 惟天不與紂，惟我周家下民秉心爲我，皆是天明德可畏之效。

상기 예문에서 ‘帝’나 ‘上帝’는 앞에는 거의 ‘은나라 너희들’이라는 수식어구를, ‘天’ 앞에는 ‘주나라 우리들’이라는 수식어구를 붙일 수 있다. 즉 經文에서 ‘天’과 ‘帝’는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孔傳에 이르면 사라진다. 孔傳에서는 (29)-(31)의 ‘天’은 모두 그대로 ‘天’으로 쓰여 있었지만 (32)-(33)의 ‘帝’는 모두 ‘天’으로 바뀌어 註解하고 있었다. 또한 (7c)의 ‘上帝’는 ‘天’으로, (34)의 ‘帝’와 ‘天’은 모두 ‘天’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러한 誤讀은 후대의 번역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존하는 거의 모든 譯書에서 ‘帝’와 ‘天’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하늘’이나 ‘天’으로 풀이하고 있다.

즉 經文에서 존재하던 ‘帝’와 ‘天’이라는 어휘적 차이가 孔傳에 이르면 사라지게 되고 ‘天’으로 통일되게 되는 것이다. 이는 西周 시기 당시의 어휘적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데서 온 어휘적 誤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 IV. 나오며

본고에서는 《尙書·多士》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經文과 주석서의 언어적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經文과 주석서의 언어 비교는 백은희(1999), 王洪君(1987) 등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기존 연구는 經文과 주석서의 비교를 통해 언어 변이 현상을 도출하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經文을 주석서의 관점으로 誤讀하고 있는 경우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후대의 언어적 시각으로 선진 시기 문헌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代詞의 대체, 否定詞의 대체, 부정문에서의 代詞의 위치 등을 집중 살펴보았다면 본고에서는 긍정문에서 목적어가 전치되었을 경우 재지시(複指)하는 성분이 문장 구조에 출현한다는 점, 명

사화된 VP 구조가 후대에 유표화된다는 점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어학적 차이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현상 외에 새로운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석서의 관점으로 經文을 풀이할 때 그 당시의 언어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특정 텍스트에서 출발하여 언어적 사실들을 도출한 귀납적 연구방법은 기존의 연구 성과의 틀을 답습하여 그 틀 안에서만 연구를 진행하는 연역적 연구방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언어적 사실들을 발견하게 해준다.

그러나 본고는 經文과 주석서 언어를 비교 대조함에 있어 《尙書》전부를 고찰하지 못하고 〈多士〉편에 제한해서 살펴보고 있으며 필자의 독해력의 한계로 〈多士〉편 중에서도 필자가 비교적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즉 ‘惟’자문, 다음절화, 단순 어휘 대체 등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다.<sup>12)</sup> 또한 經文과 孔傳에서의 통사적이고 어휘적인 차이가 언어 변이와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孔傳에서의 변화가 어느 시기의 언어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이러한 小題에서 출발한 문제제기는 향후 확장되어 연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바로 본고의 의의가 아닐까 한다.

### 【參考文獻】

- (清)皮錫瑞《今文尙書考證(中)》台北, 藝文印書館, 1964.  
 李學勤主編《尙書正義》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蒲立本《古漢語語法綱要》臺北, 商務印書館, 2006.  
 屈萬里《尙書今註今譯》臺北, 商務印書館, 1969.

12) 필자의 초보적 고찰에 따르면 ‘惟’자문의 경우 經文에서는 비교문에 쓰여 對比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孔傳에서는 이를 인과 관계로 풀이하고 있었는데 이는 어찌면 중국어의 병렬구조에서 偏正구조의 변화와도 관련 있을 듯하다. 또한 어휘 변천의 각도에서 살펴보았을 때 經文의 다음절은 孔傳에서 상당수 다음절화되어 있었는데 이 또한 중국어사 변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畀’ 등의 일부 동사는 ‘與’로 바뀌어 사용되면서 구조 또한 V에서 VP구조로 바뀌어 목적어를 수반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향후 이러한 초보적인 고찰에 대한 심층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顧詒剛·劉起鈞《尚書校釋譯論》北京，中華書局，2005。
- 張 楨《漢語介詞詞組詞序的歷史演變》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2002。
- 김학주《新完譯 書經》서울，明文堂，2002。
- 김현철《尚書虛詞研究》서울，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7。
- 曹銀晶《“也”“矣”“已”的功能及其演變》北京，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2012。
- 魏培泉〈上古漢語到中古漢語語法的重要發展〉；《古今通塞：漢語的歷史與發展》(第三屆國際漢學會議論文集)臺北，中央研究院，2003。
- 王洪君〈關於名詞化自指標記“之”的消失〉；《語言學論叢》14輯，北京，商務印書館，1987。
- 李學勤《〈尚書孔傳〉的出現時間》；《古籍整理研究學刊》2002年 第1期。
- 陳以鳳《〈尚書孔傳〉成書問題新探》；《史學史研究》2010年 第1期。
- 蔣紹愚〈抽象原則和臨摹原則在漢語語法史中的體現〉；《古漢語研究》1999年 第4期。
- 郭錫良〈介詞“于”的起源和發展〉；《中國語文》第2期 1997。
- 梅 廣〈從楚文化的特色試看老莊的自然哲學〉；《臺大文史哲學報》第67期 2007。
- 백은희《〈詩經〉의 經文과 毛傳, 鄭箋에 사용된 언어의 비교연구》；《中國學報》第40輯，1999。
- 백은희〈先秦, 兩漢 間의 漢語變移에 대한 歷史言語學的 考察〉；《中國文學》第35輯，2001。
- 유선영《〈尚書〉의 목적어 전치 유형 및 그 특징에 관한 연구》；《中國言語研究》第30輯，2009。
- 정만호《〈尚書〉에 나타난 ‘于’의 用例 研究 - 直接賓語의 引進을 中心으로 -》；《漢文學論集》第21輯，2003。

### 【中文提要】

本文通過《尚書·多士》篇經文和孔傳語言的比較，試圖討論兩者之間的差異。本文認為兩者有如下特點：第一，從漢語史的角度看，孔傳反映了語言變遷的痕跡。如人稱代詞和指示代詞有整合以及替代的趨勢、否定詞有整合的趨勢；否定句和肯定句的人稱代詞從前置到後置、肯定句的賓語前置在孔傳裏出現了指示代詞“之”來複指等現象。第二，有些例句在孔傳裏邊誤讀成別的意思，這是從孔傳當時的語言觀去誤解先秦文獻的。如把動詞‘于’解釋成介詞‘

于’、原來有區分的‘帝’和‘天’在孔傳裡不分等。通過這些考察，我們知道了利用註釋文字進行漢語史研究的時候，還是要謹慎小心。

**【主題語】**

尙書, 多士, 經文, 孔傳, 語言變化, 誤讀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